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HD현대아너상 대상

어려운 이웃 위해 헌신... 1% 나눔상 중복 수상 상금 2억원 전주시 소외계층 위해 사용 예정

23년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낮밤 없는 선정을 베풀며 전주시를 천사도시로 만든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이웃을 위해 헌신한 시민 영웅으로 인정받았다.

전주시는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글로벌 R&D센터 1층 아산홀에서 열린 '2023년 HD현대아너상 시상식'에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제1회 HD현대아너상 대상과 1%나눔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은 1%나눔상의 2가지 분야 수상자로 중복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얼굴 없는 천사'를 대신해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참석해 상을 대리 수상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받은 시상금 2억원(대상 1억 5000만 원, 1%나눔상 5000만 원)은 전주시에 전달돼 '얼굴 없는 천사'가 평소 밝혀온 뜻에 따라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주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 노송동주민센터 민원실에 58만 4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23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익명으로 성금을 기부해왔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 금액만 8억 8000여만 원에 달한다.

송혜인 전주시 노송동장은 "2000년부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2023년 HD현대아너상 시상식에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제1회 HD현대아너상 대상과 1%나눔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얼굴 없는 천사'를 대신해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참석해 상을 대리 수상했다.

터 한해도 빠짐없이 익명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사랑과 감동을 선사한 전주시 '얼굴 없는 천사'와 HD현대1% 나눔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

로도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나눔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완산구민과 함께하는 송년 음악회

26일 한국전통문화전당서 다채로운 공연 개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오는 26일 오후 7시, 한국전통문화전당 2층 공연장에서 '2023년도 제1회 완산구민과 함께하는 송년 음악회'를 개최한다.

완산구는 구민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2024년 청룡의 해(갑진년)를 희망차게 시작하기 위해 (사)시가내리는마을(대표 오서영)과 함께 이번 송년 음악회를 준비했다.

이날 송년 음악회에서는 △대금(김수관) △가야금병창(김정순) △시낭송(오서영, 심양섭, 유영미) △민요·색소폰(김민숙, 박보성) △통기타(무종지대) △6인조 밴드 등 다채로운 장르의 풍성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구는 처음 열리는 이번 송년 음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 감수성을 키우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번 송년 음악회를 함께 준비한 오서영 (사)시가내리는마을 대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청룡의 해를 힘차게 열고자 송년 분위기를 가득한 다채로운 공연을 준



비했다"면서 "이웃들을 위해 이번 송년 음악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은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이번 송년 음악회를 통해 한 해 동안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으로 넉넉하게 채워질 것"이라며 "모든 구민이 2023년 한 해를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전주산 닳나무로 고품질 한지 생산

우범기 시장·관계자 등 참석 흑석골 주민들과 닳나무 껍질 벗기기 행사 개최

전주시는 19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의원, 전주한지협동조합, 한지업체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흑석골 주민들과 함께 한지의 주원료인 닳나무를 찌고 껍질을 벗기는 '닥무지 행사'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주 전통한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닳원료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7개 농가 15필지(2만1478㎡)에 1만4000여 그루의 닳나무를 계약재배해왔다.

시는 올해 계약재배 결과 약 14톤 정도의 닳나무를 수확했으며, 닳무지 작업을 거치면 약 2.4톤 정도의 흑피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통한지(A4 기준) 28만 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이날 진행된 닳무지 작업은 닳나무의 껍질이 잘 벗겨지도록 뜨거운 증기로 나무를 찌는 과정으로, 4~5시간의 닳무지 과정이 끝나면 다 찌진 닳나무의 껍질을 벗길 수가 있다. 이렇게 벗긴 껍질을 햇볕에 말리면 한지원료인 '흑피'가 된다.

생산된 흑피는 전주천년한지관의 한지 제조에 일부 사용되며, 나머지 분



전주시는 19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우범기 시장과 한지업체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흑석골 주민들과 함께 한지의 주원료인 닳나무를 찌고 껍질을 벗기는 '닥무지 행사'를 진행했다.

량은 전주한지장 4인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는 완주군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전주시 2개 농가와 완주군 5개 농가의 2만847㎡의 신규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1만2000여 그루의 닳나무를 새롭게 식재하는 등 전주 전통한지의 공급 기반을 확대하

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고품질 전주한지의 원료가 될 전주산 닳나무 식재와 재배, 수확까지 정성을 다해주시 모든 농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질 한지를 생산하기 위해 닳나무 식재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1회용품 없는 날'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전주시는 19일 송천동 일대에서 생활 속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시는 송천동 소재 상가 일대에서 현수막과 표지판을 이용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또 전주시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들도 함께 참여해 시민들에게 1회용품 줄이기의 필요성을 안내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과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가자들은 카페와 음식점 등 매장을 방문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1회용품 줄여가게'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도 펼쳤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1회용품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모습이 전주시 곳곳에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김동현(사진 왼쪽부터)·박선전·이남숙 의원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 임할 것"

전주시의회 김동현·박선전·이남숙 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전주시의회는 19일 김동현 의원(삼천1·2·3,효자동)과 박선전 의원(진북·인후1·2,금안1·2동), 이남숙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 부천시 금정구의회 의장)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그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 의원은 "이렇듯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옥기 기자

★ 남원 명품 농산물 ★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소통과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의회
넘쳐나는 희망으로 함께하는 의회
남원시의 발전과 남원시민의 행복을 위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